

특집논문

세브란스 학생 독립운동

-네트워크 형성과 3·1운동의 전국적 확대를 중심으로

김영수*

- I. 들어가는 말
- II. 3·1운동과 세브란스의 학생 네트워크
- III. 독립선언서 배포를 통해 본 학생조직과 세브란스
- IV. 맺음말을 대신하여: 세브란스 학생 독립운동의 특징

I. 들어가는 말

세브란스인의 독립운동은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 7명의 행보에서부터 명확히 드러난다.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었는데, 이에 저항한 박성환의 자결에 이어 일본군과 한국군의 전투가 시작되었다. 이 전투는 세브란스병원과 멀지 않은 곳에서 일어났고 세브란스 학생들은 부상병들을 직접 치료하게 되었다. 이 경험은 그들에게 국내에서 구국운동 전개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심어주었고, 그 결과 이들이 독립운동의 근거지를 해외로 옮겨 독립군기지 건설이나 항일무장투쟁을 지원하는 단체에 가담하고, 적십자회나 간호부양성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했다.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연구소 의학사학과 기초연구조교수, 동아시아의학사 전공

1)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연세의학』 18-2, (2015), 52.

해외 독립운동 활동은 제1회 졸업생의 행보에서 두드러지지만, 이후 식민지화가 진행되는 조국의 운명을 바라보며 해외로 나간 졸업생들이 다수 있다. 해외에서 독립운동활동을 한 세브란스인은 3·1운동 이전인 1918년까지의 졸업생 71명 중 5분의 1 이상이며, 세브란스간호부양성소를 졸업한 인물 4명도 만주에서 활동했다.²⁾

많은 세브란스인들이 해외에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였지만,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인물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세브란스의 역사 중 독립운동과 연관 지어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3·1운동을 꼽을 수 있다. 세브란스인의 독립운동의 특징은 교직원, 학생, 간호사 등 모든 직군에서 참여했다는 점인데, 특히 이러한 경향이 3·1운동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3·1운동의 준비과정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당시 세브란스를 구성하고 있던 다양한 직군이 참여했다. 교직원을 비롯하여 학생, 간호사 등 가르치는 자와 배움을 얻는 자, 병원의 운영에 종사하던 자 등 직능과 신분에 관계없이 조국의 독립을 이루고자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것이다.

세브란스인의 독립운동은 일제강점기 초기뿐만이 아니라 후기까지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졌다. 따라서 세브란스인의 독립운동이라는 주제로 세브란스에 몸담았던 다양한 인물들을 조명하고, 이들이 참여했던 단체, 기관 등에 대한 연구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직군 중에서도 가르침을 받는 학생의 신분이지만, 지식인으로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는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겠다. 장규식, 반병률 등 독립운동연구의 대표적인 학자들이 세브란스 학생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세브란스 독립운동의 많은 부분은 이미 밝혀져 있다.³⁾ 그 연구들은 의료기관이자 교육기관인 세브란스가 한국의 독립운동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본 논문은 학생들의 독립운동 중에서도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 만세시위에 참가한 학생들의 행보를 통해 세브란스 학생독립운동에 주목하면서, 학생들의 만세시위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거나 미처 주목받지 못했던 점을 부각시켜

2) 세브란스간호부양성소 졸업생은 1917년까지 22명이며, 그 중 사망자 1명을 제외한 4명이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신규환,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 『동방학지』 184, (2018), 30.

3) 장규식, 「YMCA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반병률,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1-1, (2008); 박형우, 「1910년대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3·1운동 시기를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8-2, (2015); 신규환,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 등 참조.

다루어보고자 한다. 우선 세브란스연합의학전문학교(이하 세브란스의전) 학생들 중 3·1 운동에 참가하였던 인물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떠한 조건이 세브란스 학생 독립운동에 주요하였는지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또한 3·1운동에 참여한 세브란스 학생들의 연결고리, 특히 세브란스 학생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된 장소에 주목하고, 또한 그들이 각지에서 일어난 만세시위에서 활동했던 사실을 바탕으로 만세시위의 전국적인 확산에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3·1운동과 세브란스의 학생 네트워크

1. 3·1 독립운동과 학생 조직의 역할

세브란스는 기독교의 이념 아래 의학전문학교로서 교육을 담당하는 공간이자, 병원으로서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이었다. 또한 남대문 정거장(현 서울역)이라는 교통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어 세브란스인이 독립운동에 참여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선교사들의 역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18년 11월 재미 한국인들은 독립운동시위를 벌였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⁴⁾ 그러한 의미에서 세브란스는 독립운동을 도모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장소였다.

세브란스병원은 다양한 직군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준비했다. 그 중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은 3월 1일 당일 독립선언과 가두시위를 위한 선언서를 배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세브란스의전의 학생기독교청년회(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이하 YMCA), 서북학생친목회, 교남학생친목회 등이 배후에 있었다.

3·1운동을 치르기 위한 학생단 조직구성은 YMCA 간사 박희도의 주도로 1월 말부터 이루어졌고, 2월에는 이갑성의 주선으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도 학생단 조직에 합류하게 되었다.⁵⁾ 2월 12일 세브란스 구내에 위치하던 이갑성의 사택에서 기독교학생 위주의 모임

4) 「선교사들 조선 독립운동의 배후」, *The Japan Advertiser*(1919. 1. 7.),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재팬 애드버타이저 3·1운동 기사집』(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67.

5) 장규식, 「YMCA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124;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36-37.

이 이루어졌고, 이날 이후 학생대표들의 독립운동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⁶⁾ 학생단에는 민족대표인 박희도(중앙 YMCA간사), 이갑성(세브란스병원 제약주임), 김원벽(연희전문 학생 YMCA회장 역임, 경신학교 교사), 그리고 학생대표인 강기덕(보성법률상업학교 3학년), 김형기(경성의학전문학교 4학년), 김문진(세브란스의전 3학년, 세브란스의전 학생 YMCA회장), 전성득(전수학교 재학), 김대우(경성공업전문학교 2학년, 서북학생친목회) 등이 주요 구성원이었다.⁷⁾

3·1만세시위는 종로 파고다공원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종로 파고다공원을 지나 YMCA, 보신각을 지나 시내로 만세를 외치며 행진하였다. 3월 1일의 만세시위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일어났다. 민족대표 33인은 이미 태화관에서 체포되어 압송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3월 1일 토요일 서울 종로에서 시작된 만세시위는 3월 3일 월요일의 고종의 장례식을 전후하여 이어졌다.

3월 1일부터 지속되는 만세시위로 매일 백여 명에서 수백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잡혀 들어갔다. 3·1운동은 종교계뿐만 아니라 학생단이 적극적인 활동을 벌였는데, 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시위는 3월 5일에 일어난 만세시위였다. 이는 거사 전부터 전문학교 학생들이 중심이 된 학생단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었고, 학생단은 서울역, 남대문 일대, 대한문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그 과정에서 4백여 명이 연행되었다.⁸⁾ 고종의 장례식 직전 고종 독살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경찰이 3월 1일부터 일어난 만세시위를 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작아지지 않았다. 조선총독부 내부에서도 경찰과 헌병대의 온건한 조치로 진압이 불가능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⁹⁾ 일제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만세시위를 탄압하고자 진압의 강도를 높였고, 시위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학생단은 3월 5일을 제1차 시위로 삼고, 한 달여 간 후속시위를 계획하였다. 이용설의 회고에 따르면, 3월 5일을 기점으로 4-5일 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 다섯 차례로 나누어 만

6) 김원벽의 신문조서에 따르면 보성법률상업학교의 강기덕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날 초대받지 못하였고, 윤자영은 교남학생친목회 회장인 배동석과 친한 사이여서 참석하였다고 한다. 「김원벽 신문조서(제2회)」(1919. 7. 11.),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1(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7) 이외에 배후세력으로 한의진(경성의전 2학년, 서북학생친목회), 이용설(세브란스의전 4학년, 세브란스의전 학생 YMCA회장 역임), 윤자영(전수학교 1학년, 교남학생친목회) 등을 꼽을 수 있다. 장규식, 「YMCA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132.

8) 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York: F. H. Revell Company, 1919), 256.

9) 「폭동을 일삼는 조선학생들」, *The Japan Advertiser* (1919. 3. 4.),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재팬 애드버타이저 3·1운동 기사집』, 92.

세시위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과 검색이 실시되면서, 서울 중심가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 어려워졌기 때문에 학생단을 중심으로 한 시위는 차질을 빚었다. 가두시위를 진행하는 대신에 『독립신문』을 발행하기로 하고, 세브란스가 중심이 되어 각처에서 일어나는 시위소식, 파리평화회의 소식, 격문 등 만세시위를 대신하여 독립운동의 열기를 전하고 시민을 독려할 수 있는 소식을 담은 한 장 분량의 신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¹⁰⁾

학생단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3월 5일의 만세시위에 대해서 세브란스병원 에비슨 원장의 비서였던 오웬스(H. T. Owens)는 학생들은 어떠한 폭력도 시도하지 않고, 시위 자체에 목적이 있어 자신의 나라를 위해 체포당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묘사하고 있다.¹¹⁾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남녀를 구별하지 않고 거칠게 다루었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학생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의 학생들이 체포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오웬스의 글을 통해 비폭력적이지만, 대규모로 진행된 학생단 시위대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2. 세브란스의전 학생의 3·1 독립운동 모의 : YMCA 기독교청년회와 ‘화천정 126번지’

1918년 후반부터 국내외에서 조국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은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당시 세브란스의전에는 학생 YMCA가 조직되어 있었다.

학생 YMCA는 1901년 9월 배재학당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당시 명칭은 학숙청년회였다. 1903년 10월 황성기독교청년회가 창설되었는데, 이것이 한국 YMCA의 출발로 여겨진다.¹²⁾ 한국 YMCA의 창립에는 당시 알렌, 에비슨, 언더우드 등의 선교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출발을 도왔다. 1910년 6월부터 매년 학생 하령회(夏令會)가 개최되면서 학생 YMCA는 전국적으로 조직되었고, 사회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14년 4월 개성 한영서

10) 이용설, 「나의 三·一學生運動 體驗」, 『새벽』 3-1, (1956.1.), 30;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40;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8-2, (2015), 56.

11) H. T. Owens, *Disturbances in Korea, March 24th, 1919* (Seoul: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6;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 57.

12)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서울: 범우사, 1994), 58-60; 신규환,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 40.

원에서 조선기독교청년회 연합회(조선 YMCA 연합회)가 창립되었을 때, 세브란스 학생 YMCA, 중앙 YMCA를 비롯하여 8개의 중등학교 학생 YMCA 등 10개의 조직이 발기하였다. 그 중 전문학교 학생들의 모임인 것은 유일하게 세브란스 학생 YMCA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YMCA 연합회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¹³⁾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은 대부분 YMCA 소속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브란스의전 YMCA를 통해 조직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또한 중앙 YMCA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그리고 학생 YMCA 이외에 서북학생친목회(김원벽, 한위건, 김형기)나 교남학생친목회(배동석, 윤자영) 등도 학생들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유기적인 학생조직이 세브란스의전 내에 존재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러한 단체가 독립운동에서 조직적인 활약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한 이는 이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세브란스병원 제약주임이었던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 YMCA의 임원진들과 친밀한 교분을 나누고 있었다. 3·1운동에서 학생시위를 주도한 이용설과 김문진은 각각 세브란스의전 YMCA의 전현임 회장이었다. 1919년 2월 12일, 이갑성은 세브란스의전의 김문진, 이용설, 배동석, 그리고 연희전문의 김원벽, 경성의전의 한위건, 김형기, 경성전수학교의 윤자영을 병원 내 자신의 사택에 초청하여 국내 독립운동 계획을 암시했다. 또한 2월 21일과 2월 23일에는 이갑성과 함태영의 사택에서 장로교 및 감리교 양 교단의 지도자 연석회의가 개최되면서 세브란스는 3·1운동 거사의 중심이 되어 갔다. 이러한 독립운동을 위한 회의의 분위기는 이갑성과 학생 YMCA를 통하여 바로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다.

학생운동은 2월 28일 밤 정동교회 구내의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 열린 중등학생 대표자 모임에서 각자의 임무가 주어지면서 시위 당일의 행보를 본격화하였다. 이는 강기덕과 한위건이 독립선언서를 배부하기 위하여 소집한 회의였다. 이 자리에서 강기덕, 이용설, 김문진, 한위건은 이갑성이 세브란스의전 학생 김성국을 통해 승동교회로 보낸 독립선언서 1,500부와 김문진이 정동교회로 직접 가져온 1,000부의 독립선언서를 중등학교 학생대표에게 나누어주고, 각각 배포할 장소와 시간을 정해 주었다. 이처럼 학생YMCA는 실질적으로 3·1운동에서 학생단의 주요 조직기반으로 만세시위의 조직적 전개와 확산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세브란스의전 학생YMCA는 만세시위 직전에 학교를 중퇴한 민족대표 이갑성-전임 YMCA회장 이용설-현 YMCA회장 김문진과 배동석 등으로 이어지는

13)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 184-192; 신규환,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 41.

라인을 통해, 연희전문 학생YMCA는 연희전문 기숙사 사감을 지낸 바 있는 민족대표 박희도-초대 회장 출신 김원벽-현 회장 이병주와 노준탁 등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통해 조직적으로 학생운동에 개입하였다.¹⁴⁾

서울에서 만세시위에 참여한 세브란스의전 재학생은 12명으로, 김문진, 김병수, 김봉렬, 김성국, 김찬두, 박주풍, 배동석, 서영완, 송춘근, 이평상, 이용설, 최동(가나다순)이다. 각 인물별로 3·1만세시위에 어떻게 참가하게 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생단 대표자 중의 한 명이었던 이용설(李容畠, 1895-1993)은 평북 회천 출신으로, 1915년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여 만세시위 당시에는 4학년이었다. 그는 학생들 주도의 독립운동 준비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시위운동에 동원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까지 『조선독립신문』의 발간에 관여하여 독립운동의 기운을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했다.¹⁵⁾

또 다른 학생단 대표자였던 김문진(金文軫, 1896-1925)은 경북 대구 출신으로, 대구에서 기독교계통의 교육기관인 계성학교를 졸업하고, 1916년 세브란스의전에 진학하였다. 만세시위 당시 그는 세브란스의전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김문진은 세브란스의전 학생대표로 활동하면서 3·1운동의 준비단계에서 학생들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그의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일제가 작성한 판결조서에 따르면 3·1운동에 참여한 다른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이 김문진을 통해 2월 28일 혹은 만세시위 당일 3·1운동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만세시위에 참가한 세브란스의전 학생인 이평상은 김문진에게 3월 1일 독립선언서를 마산으로 건네줄 것을 부탁받았고, 김문진과 함께 이갑성의 집으로 가서 독립선언서 50여 장을 건네받아 마산의 임학찬에게 전달해 주고 오기도 하였다.¹⁶⁾ 김문진 본인도 경상도의 연락책임을 맡은 이갑성의 부탁으로 2월 26일 대구에 파견되기도 하였다.¹⁷⁾ 이렇듯 김문진과 이갑성의 연결고리는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3·1운동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맺은 인연은 아니었다. 김문진과 이갑성은 경북 대구라는 동향 관계

14) 김상기 외 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 (2009), 132-136.

15) 『조선독립신문』의 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단행본을 참조.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삼일운동사(상)』(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124-125. 체포되지는 않았다.

16) 경성총로경찰서, 「이평상에 관한 수사보고」(1919. 4. 26.),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3(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경성총로경찰서, 「이평상의 신문조서」(1919. 5. 2.).

17)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삼일운동사(하)』(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347-348.

에 있었고, 1916년 입학 당시 작성된 김문진의 학적부에는 정보증인(正保證人)으로 이갑성의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¹⁸⁾ 김문진이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이갑성이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갑성이 적극적으로 독립운동 거사를 모의하는 가운데 김문진은 이갑성과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을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가 3월 1일에 만세운동에 참여한 것까지는 확인되지만, 이후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다. 그의 신문조서와 판결문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서만 그의 행적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세운동과 관련한 자료로는 보안법 위반이라는 죄목의 형사사건부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1921년 10월 경북지역 의술개업면허장을 취득한 이후 대구에서 병원을 개업하여 의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3·1 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자료상으로는 명확히 파악할 수 없다.¹⁹⁾

다만, 그의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다. 김문진과의 인연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다수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광상, 박주풍, 김찬두, 김봉렬 등이다. 김문진과의 인연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광상(李宏祥, 1892-1934)은 경남 창원 출신으로,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기 이전에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다른 학생들보다는 늦은 나이에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다. 1919년 당시 27세로 세브란스의전 1학년이었다. 그는 김문진의 소개로 이갑성을 알게 되었고, 그의 고향과 가까운 마산으로 가서 임학찬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는 서울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나기 직전인 3월 1일 아침 8시에 기차를 타고 마산으로 이동하여 독립선언서와 함께 서울에서의 만세시위의 계획을 전달했다. 그의 동선을 보면 3월 1일의 시위에는 참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3월 5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제2차 시위가 남대문에서 진행되었으나 여기에도 참가하지 않았다.²⁰⁾ 이광상은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시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같은 해 4월에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의 하숙집에서 체포되었다.²¹⁾ 그는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미결구류일수 120일)을 언도 받았으나, 복심법원에서

18) 부보증인(副保證人)으로 김문진의 아버지인 김덕향(金德卿)이 올라가 있다. 김문진 학적부 참조.

19) 「의사시험합격자」, 『매일신보』 및 『동아일보』(1921. 10. 9.).

2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삼일운동 재판기록』(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104-108, 111-114, 156-18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3: 학생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7), 121-125; 「이광상 신문조서」(1919. 5. 2.),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3(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 「이광상 신문조서」(1919. 5. 5.),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5(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21) 「이광상에 관한 수사보고」(1919. 4. 26.)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²²⁾

박주풍(朴周豊, 1892-?)은 함북 명천 출신으로, 경신학교 특별과를 졸업한 후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여 1919년 당시 4학년에 재학중이었다. 그는 3·1운동계획에 대해서는 학교 안팎에서 2월 말경 손병희 외 30여 명이 독립선언을 할 것이라는 풍문을 들어 알고 있었고, 실제로는 이용설, 김문진 등을 통해 3·1운동 계획에 대해 접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³⁾ 독립운동의 기운을 접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3·1운동에 참여를 독려하는 강기덕의 권유에도 응했던 것으로 보아, 독립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인물이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3월 1일 파고다공원으로 나가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불렀고, 3월 5일에도 남대문 앞에서의 시위에도 동참하였다. 남대문 앞까지 갔다가 경관에게 가로막혀 돌아왔고, 그날 밤 하숙집에 있다가 체포되어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미결구류일수 90일 산입)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²⁴⁾

김찬두(金瓚斗, 1897-?)는 평남 대동 출신이다. 1919년 당시 22세로, 배재고보를 졸업하고, 세브란스의전에 진학한 것으로 보아 세브란스의전 진학 이전부터 서울에 거주하였다. 1919년 세브란스의전 1학년 재학 당시 학년 급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1학년은 20명 정도였는데, 항상 결석자가 있어 출석하는 학생은 보통 15-16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가 학년 급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학생 YMCA회장인 김문진과 당연히 알고 지냈을 것이나, 신문물을 받을 때는 같은 학교 선배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만 대답하여 김문진과의 관계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²⁵⁾ 김찬두는 가두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1919년 3월 1일 오후 3시경 종로 1정목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군중들과 합류하여 우미관 앞까지 행진하였다가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그는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1919년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의 공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3년간 집행유예(미결구류일수 90일 산입) 선고를 받았다.²⁶⁾

22)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8. 30.), CJA000040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11. 6.), CJA0000401;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20. 2. 27.), CJA0000150.

23) 「박주풍신문조서」(1919. 3. 1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4(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1); 「박주풍신문조서」(1919. 6. 2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공판시 말서」(1919. 10. 29.),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8(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24)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8. 30.), CJA000040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11. 6.), CJA0000401.

25) 「刀圭界의 巨擘-순천의원장 김찬두 씨」, 『동아일보』(1937. 6. 25.); 「김찬두 신문조서」(1919. 6. 2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

26)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8. 30.), CJA000040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11. 6.), CJA0000401.

김봉렬(金鳳烈, 1897-)은 1897년 평남 진남포 출생으로, 본적지는 평양이고,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 세브란스의전 입학 전에 연희전문학교를 다녔다고 알려져 있다. 김찬두와 나이와 학년이 같고, 같은 연희전문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입학 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1919년 3월 1일 당일 김문진에게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이 있음을 전해들었고, 그길로 공원으로 가서 독립선언서 낭독을 들은 후 만세를 부르며 대한문과 미국영사관 방향으로 행진하였다가 돌아왔다고 한다. 또 한 3월 5일의 만세운동 때에는 남대문 부근으로 나가 참여하였고, 군중에 가담하여 대한문 앞까지 행진하였다가 그곳에서 체포되었다. 보안법 및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3년 집행유예(미결구류일수 90일 산입)를 선고받았다.²⁷⁾

표 1. 3·1운동에 참여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재학생 명단(주소지 및 가나다순)

이름	학년 및 나이	출신지	주소지	판결 내용
김문진 金文珍	세브란스의전 3학년, 24세	경북 대구	경성부 화천정 126 오한영의 집	
김봉렬 金鳳烈	세브란스의전 1학년, 22세	평양	위와 같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결 90일)
김성국 金成國	세브란스의전 3학년, 29세	부산	위와 같음	무죄
김찬두 金瓚斗	세브란스의전 1학년, 22세	평남 대동	위와 같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결 90일)
배동식 裴東奭	세브란스의전 2학년, 29세	경남 김해	위와 같음	징역 1년(미결 120일),
이광상 李宏祥	세브란스의전 1학년, 27세	경남 창원	위와 같음	무죄
김병수 金炳洙	세브란스의전 3학년, 22세	전북 김제	경성부 죽첨정 하숙	징역 8월(미결 180일)
박주풍 朴周豊	세브란스의전 4학년, 27세	함북 명천	경성부 수송동 16 최광훈의 집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 (미결 90일)
서영완 徐永琬	세브란스의전 1학년, 21세	부산	경성부 통동 60	징역 6개월(미결 90일)
이용설 李容奭	세브란스의전 4학년, 24세	평북 희천	경성부 견지정 119-1	
최동 崔棟	세브란스의전 2학년, 24세	전남 목포	경성부 의주통 1정목 137	징역 7개월 집행유예 3년 (미결 120일)
송춘근 宋春根 宋鳳海	세브란스의전 3학년, 28세	경기 양주	경성부 맹정정 2-55	징역 1년 6개월

27)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8. 30.), CJA000040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11. 6.), CJA0000401.

한편, 이갑성과의 인연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인물도 있다. 김성국과 배동석, 김병수이다. 김성국과 배동석은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고, 이갑성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거나, 같은 학교 동기인 경우에 해당한다. 김성국(金成國, 1890-?)은 경신학교를 거쳐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는데, 경신학교 재학중에 경성의 각 학교에서 일어난 한일합병 결사반대운동에 가담하여 1년간 옥고를 치르고 나온 뒤 1916년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다.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3학년으로, 이갑성과의 친분으로 3월 1일 이전부터 3·1운동 준비에 가담하고 있었다. 그는 비밀연락원으로 원산으로 가서 목사 정춘수를 만나 독립운동 청원서에 첨부할 서명을 받아서 돌아오고, 거사 하루 전날인 2월 28일에는 이갑성을 만나 이종일의 집에 가서 조선독립선언서 약 1,000장을 받아 승동예배당으로 가서 강기덕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3월 1일 당일에는 오후 4, 5시경 남대문 밖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화천정까지 행진하였다.²⁸⁾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미결구류일수 120일 산입)을 선고받았는데, 다른 학생들보다 형량이 높다. 그러나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에서는 죄목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²⁹⁾

배동석(裴東奭, 1891-1924)은 1917년 세브란스의전을 입학하여 1919년 당시 2학년 학생이었다.³⁰⁾ 대구 계성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배일혐의로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으나 학업은 지속하였다. 계성학교를 퇴학하고, 서울의 경신학교에 입학하여 1910년 이갑성과 같은 해에 경신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그는 만주에서 김좌진과 함께 항일운동을 벌이기도 하는 등 그의 청년기의 삶에서 투철한 항일정신을 엿볼 수 있다. 그는 독립운동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진 인물로, 세브란스의전 재학 중에는 다른 학생들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여 그의 출신지역의 친목회인 교남학생친목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영남지역학생들과의 친분을 유지하고 지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는 3·1운동을 주도하던 학생단의 주요인물로는 이름이 거론되고 있지는 않았지만, 교남학생친목회 회원이며 전수학교 1학년 학생이었던 윤자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학생단의 배후세력이었던 것으로

28) 「공판시말서」(1919. 9. 3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8; 「공판시말서」(1920. 1. 2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9(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4); 연세의대 부산동창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연세의대부산동창회100년사: 1914-2014』(부산: 연세의대 부산동창회, 2014), 4.

29)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8. 30.), CJA0000401;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 11. 6.), CJA0000401;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20. 2. 27), CJA0000150.

30) 입학년도는 현재까지 1918년으로 알려져 왔는데, 세브란스의전 학적부를 확인한 결과 1917년에 입학하였음이 확인된다.

추정해볼 수 있다.

그는 2월 25일 이갑성의 부탁으로 마산지역 만세운동을 규합하기 위해 마산에 다녀오기도 했고, 3월 1일 파고다공원의 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종로경찰서 앞까지 행진하였다. 그리고 3월 5일 학생들이 주도한 제2차 만세시위에서는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기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두 번의 시위에 모두 참가하였으나, 이 시위로는 다행히 체포당하지는 않았고, 고향인 김해와 마산, 함안 등지의 만세시위 전개에 크게 공헌하였다. 각지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김병수(金炳洙, 1898-1951)는 군산지역의 만세운동을 주도하던 영명학교 은사 박연세와 이갑성 사이에서 중요 연락책 역할을 맡았다. 그는 전북 김제 출신으로, 옥구군 구암리 영명학교(永明學校)를 졸업하고 은사 박연세의 추천으로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다.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3학년 학생으로, 2·8독립선언 등으로 이미 독립운동의 열기를 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갑성의 요청으로 군산에 가서 영명학교 은사인 박연세를 만나 운동계획을 전달하고, 서명을 받아오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이갑성으로부터 독립선언서 100장을 받아 다시 군산으로 내려가서 박연세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3월 1일에는 서울에 없었기 때문에 만세시위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3월 5일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하여 만세를 불렀다. 그는 다시 군산으로 내려가 군산의 3·5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머리를 다쳤고, 4월에는 이리 만세시위에도 참가하는 등 서울뿐만 아니라 타지역의 만세운동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얼마 후 경찰에 체포되었고, 경성복심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³¹⁾ 김병수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으로 한다.

한편, 이용설, 김문진 등 학생 YMCA회장 및 만세운동을 주도한 이갑성 등과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다. 서영완(徐永琬, 1898-?)은 1918년 4월 입학하였고,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 1학년에 재학중이었다.³²⁾ 그는 1916년경 가족과 함께 상경하여 경성부 통동(通洞, 현 종로구 통인동)에 살고 있었고, 만세시위 참가는 3월 1일에 비계획적으로 참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조서상에서도 드러나듯이 그는 3월 1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몇 사람이 오후 2시에 파고다공원에서 거행되는 독립선언에 참가하

31) 「경성복심법원 판결문」(1920. 2. 27.), CJA0000150.

32) 서영완의 세브란스의전 학적부 참조.

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공원으로 갔다고 알려져 있다. 파고다공원에 간 그는 군중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부르며 대한문을 지나 미국영사관까지 갔다가 돌아왔고, 3월 5일에 다시 만세시위에 참가하여 종로 근처까지 갔다가, 이화학당 여학생을 만나 함께 돌아가던 중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후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넘겨졌고,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미결구류일수 90일)을 선고받았다.

최동(崔棟, 1896-1973)은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에 위치한 교세이학교(曉星學校)에 입학하였고, 1917년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다.³³⁾ 입학할 때부터 민족과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최동은 1919년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었는데, 3월 1일 파고다공원에서 쏟아져 나온 군중들과 함께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으로 같은 해 8월 30일 경성지방법원 공판에 넘겨졌고, 11월 6일 징역 7개월(미결구류일수 120일)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송춘근(宋春根 혹은 宋鳳海, 1887-1971)³⁴⁾은 경기도 양주 출신으로 당시 세브란스의전 3학년이었다. 김원벽과 강기덕의 연락을 받고 학생동원의 책임을 맡았다. 그는 3월 1일 시위에 참가하였고, 세브란스의전 교수인 스코필드 교수를 도와 일제의 한국인 학살만행을 담은 사진을 언론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후 남감리교 전도사인 김조길로부터 상해에서 발행되는 『국민신문(國民新聞)』, 『독립신문(獨立新聞)』 등을 춘천에 거주하는 기독교도와 유력자들에게 배포하여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상을 알리기도 하였다. 그는 춘천지역의 독립운동을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10월 징역 1년 6개월 형을 언도받았다.³⁵⁾

이처럼 3·1만세운동에 참여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출신지도, 나이도 모두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년도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신문조서의 진술내용 등을 중심으로 각 학생들의 3·1만세운동 전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세브란스의전 학생들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김문진, 이갑성 등과의 인연으로

33) 교세이학교 졸업 후 1915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입학하였는데, 1916년 안식년으로 미국에 와있던 에비스 교장의 강연을 들은 것을 계기로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게 되었다. 신동환, 「세브란스 인물사 3: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 박사」, 『연세의사학』 2-1, (1998);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편, 『제증원 세브란스인의 사회공헌』(서울: 역사공간, 2016), 35-36.

34) 「송춘근 판결문」에 따르면 판결을 받을 당시인 1920년 29세로 적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하면 1890년 혹은 1891년생일 가능성이 높다. 알려진 생몰년과 실제 나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송춘근 판결문」(1920. 10. 8.), CJA0000404.

35) 「송춘근 판결문」(1920. 10. 8.), CJA0000404.

만세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그리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만세운동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갑성과의 이용설, 김문진 등 학생단체의 수장급을 제외한 학생들의 만세운동 참가는 3월 1일 만세운동 당일이나 바로 직전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독립운동의 열기로 학교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이 서로 수업과 학교 생활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소통하고, 운동 당일에 신속하게 만세시위에 참여하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간의 연결고리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이에는 표면적으로는 세브란스의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지만, 이 외에 또 하나의 공통분모가 존재했다. 그것은 그들의 거주지 분포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의 거주지는 당시 지명으로 죽첨정(竹添町, 현 서대문구 충정로), 의주통(義州通, 현 중구 의주로), 견지정(堅志町, 현 종로구 견지동), 화천정(和泉町, 현 중구 순화동), 앵정정(櫻井町, 현 중구 회동, 인현동 일대) 등이다. 이는 모두 세브란스의전에서 멀지 않은 그들의 하숙집 주소지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3·1운동에 참여한 세브란스의전 학생 12명 중 6명이 ‘화천정(和泉町) 126번지 오한영(吳翰泳)의 집’에 거주했다. 김문진, 김봉렬, 김성국, 김찬두, 배동석, 이광상이 바로 그들이다. 3·1운동을 주도하고 참가했던 인물 중에 많은 수가 화천정 126번지에 거주했다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3월 1일 이전부터 이들 사이에서 독립운동의 열기를 공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 하숙집에 기거하던 6명 중에는 세브란스의전 학생 YMCA의 회장인 김문진과 교남학생친목회의 회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갑성과 친분이 있던 김성국도 이곳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1학년 급장이었던 김찬두 역시 이곳에 함께 살았다. 세브란스의전에서 만세운동을 벌인 주축의 상당수가 이곳에 모여 살았던 것은 우연이었을까?

김찬두와 김봉렬의 경우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일부러 다른 주소를 대어 3·1운동에 참여한 다른 학생과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게 하려는 시도를 했다. 신문조서에는 김찬두는 경성부 죽첨정 3정목 164번지, 김봉렬은 적선동 75번지라고 주소를 말했으나, 공판시말서의 주소지가 화천정 126번지로 정정되어 이들 모두 같은 하숙집에 기거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지기도 하였다.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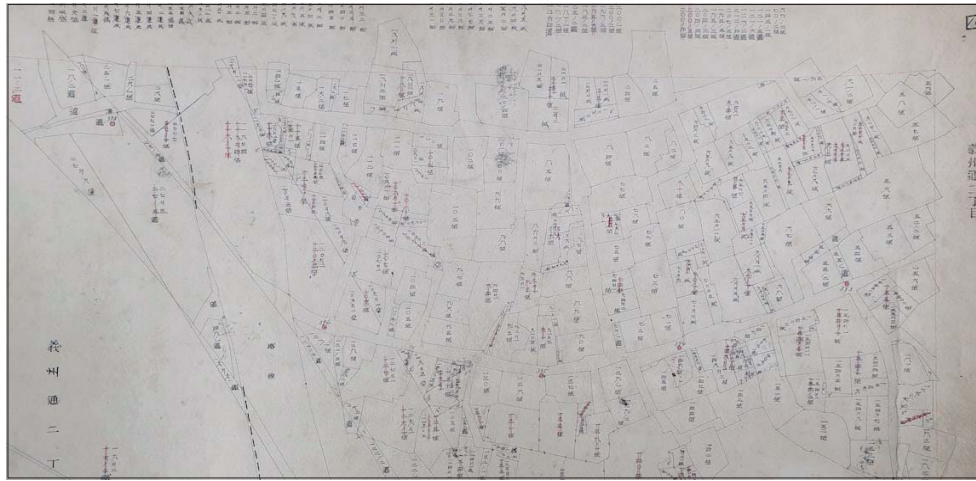


사진 1. 중구 화천정(현 중구 순화동)의 지적도
: 1936년에 작성된 지도에는 화천정 126번지는 없어지고, 126-1번지로 수정, 표기되어 있다.



사진 2. 중구 화천정 126-1번지 확대 표시

이들이 화천정 126번지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들이 같은 공간에 기거하였다는 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러 다른 주소를 언급하여 혼선을 주려고 했다는 점 등은 그들 스스로가 화천정 126번지의 하숙집에서 독립운동 거사를 준비했음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화천정 126번지 오한영의 집이 이갑성, 배동석 등을 주축으로 연결된 학생 독립운동의

36) 『김찬두 신문조서』(1919. 6. 20.),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 『김봉렬 신문조서』(1919. 6. 21.),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7; 『공판시말서』(1919. 10. 24.),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18.

집결지였다는 사실은 이 하숙집의 또 다른 하숙생의 존재에서 더욱 확실하게 드러난다. 바로 김정오(金正悟)의 존재이다. 그는 경상남도 함안 출신으로, 함안의 사립 경명학교(敬明學校)를 졸업한 뒤 서울로 와 조선약학교에 입학하였고, 1919년 당시 조선약학교 학생이었다.³⁷⁾ 그는 3월 5일에 일어난 학생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는데, 그의 거주지 역시 세브란스의의전 학생 6명과 같은 화천정 126번지였던 것이다.³⁸⁾ 김정오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그는 경상남도 함안군의 독립운동을 이끈 김세민(金世民)의 아들로, 배동석과는 처남매부지간이었다는 데에 있다. 배동석의 처남 역시 화천정 126번지 오한영의 집에 같이 기거하였다는 사실은 이 공간이 세브란스의의전 학생독립운동의 주요한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과 지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Ⅲ. 독립선언서 배포를 통해 본 학생조직과 세브란스

대한제국기인 1908년 「사립학교령」,³⁹⁾ 식민지기인 1911년 「조선교육령」,⁴⁰⁾ 1915년 「전문학교규칙」⁴¹⁾의 제정으로 학제가 정해지면서 매년 4월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그러나 1919년을 전후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한 정세와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영향으로 한국 내에서도 독립운동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의 학생들 역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였고, 1919년 초는 학기말이라는 점도 작용하여 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앞 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세브란스의의전 학생들은 서울에서의 시위에 참여하였다. 세브란스의의전 학생들 중에는 비단 서울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들도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브란스의의전에 입학한 학생들이 서울 출신보다는 지방 출신이 많고, 출신지가 다양했던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독립선언서를 각 지방으로 원활히 배포하는 데에 세브란스의의전 학생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37) 이정은, 「경남 함안군 3·1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2006), 100-101.

38) 주동빈, 「3·1운동 초기 경성시위에 대한 세대론적 분석」, 『동방학지』 184, (2018), 192.

39) 학부고시 제6호, 『관보』, (1908. 9. 1.).

40) 조선총독부칙령 제229호, 『조선총독부관보』, (1911. 8. 23.).

41) 조선총독부령 제26호, 『조선총독부관보』, (1915. 3. 24.).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인물 2명의 행적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먼저 군산 만세운동의 주역으로 일컬어지는 김병수의 활동을 살펴본 뒤 김해, 마산, 함안 지역의 만세운동을 이끈 배동석의 행적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진 3. 김병수의 수형사진(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김병수는 고향인 전북지역, 특히 군산에서 이른 시기에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데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 군산의 만세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나눠 주었고, 영명학교, 뽕볼딘 여학교, 구암 예수병원, 구암교회 등 기독교 계통 학교와 의료기관, 교회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만세시위를 이끌었다는 특징이 있다. 김병수가 군산의 독립운동에 계획단계부터 참여하게 된 데에는 이갑성과의 연결고리뿐만 아니라 군산의 기독교 계통 학교인 영명학교를 졸업하여 군산지역에 연고가 있었던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갑성은 전북 출신인 김병수에게 군산지역과의 연락책을 담당해주도록 부탁하였고, 군산으로 내려가 독립선언서 100매를 전달하고 만세운동을 주동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1919년 2월 26일 군산에 도착하여 영명학교 교사인 박연세의 집에서 이두열, 김수영, 고석주, 김윤실, 김인묵, 이동욱 등과 만나 서울의 독립만세시위 계획을 전하면서 군산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만세시위를 전개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는 군산의 독립만세운동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



사진 4.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내 “김병수를 만나다” 코너



사진 5.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내 김병수 소개

그 결과 3월 5일 군산에서 한강 이남 최초의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고, 김병수는 서울과 군산의 3·1운동의 연락책을 맡아 군산의 독립만세운동을 궤도에 올려놓고 바로 상경하여 군산에서 독립만세운동과 같은 날인 3월 5일에 남대문 정거장 앞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하였다. 또한 4월 4일 이리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의 주도적 인물이던 문용기가 군산 영명학교의 한문 및 영어교사였다. 김병수는 기독교계 영명학교라는 연결고리로 이리 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작년에 개관한 군산 3·1운동 100주년 기념관에는 김병수의 이러한 활약상을 기려 김병수를 모티브로 하여 군산 독립운동의 전개양상을 그려내고 있다.

다음으로 배동석은 경남 김해 출신으로 고향 김해와 함안, 마산 등지의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이다. 목사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그는 기독교를 접했고, 북장로회 아담스 선교사가 설립한 대구 계성학교에 입학하였다. 재학생 시절 배일 혐의로 체포되어 3개월의 옥고를 치렀고, 1908년 퇴학을 조건으로 가석방되었다. 이후 아담스 교장의 추천으로 언더우드가 설립한 경신학교에 입학하여 상경하게 되었다. 그는 1910년 경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포에서 교직 생활을 하였는데, 또 다시 배일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이른 나이부터 배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진 6. 배동석 사진

학교교사로 일하다가 1917년 28세의 나이로 다시 세브란스의전에 입학하였는데, 그 계기는 명확하지 않다. 같은 경신학교 동문으로, 세브란스의전에 다니고 있던 이갑성과의 교분이 작용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다른 학생들보다 8-10살 정도 더 많았던 그는 입학 후 경상도 출신의 학생모임인 교남학생친목회의 회장을 맡았고, 그 회원인 윤자영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배동석은 1919년 2월에 이갑성의 집에서 열린 모임에 윤자영과 함께 참석하면서 이갑성과의 교분이 생겼고, 이갑성에게 당시의 정세 및 독립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후 2월 24일에는 이갑성의 부탁으로 마산까지 다녀오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는 경남지역에서는 함안, 마산, 김해의 세 지역의 만세시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만세시위가 일어난 시기순으로 함안의 만세시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가 함안의 만세시위에 가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처가가 함안에 있었기 때문에 함안으로 왕래할 때 일본 경찰의 감시망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점이 작용했다. 함안에서는 3월 9일 칠북 연개장터에서 만세시위가 일어났는데, 이는 경남지역에서 처음 만세시위가 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은 나루와 가까워 물자 이동이 많고 행상인이 많이 모이

는 곳으로, 함안 만세시위는 경남의 다른 지역으로 독립운동이 퍼져나가는 데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

배동석은 함안의 만세시위를 주도하기 전부터 마산의 만세시위에도 관여하고 있었다. 그는 2월 말 마산에서 기독교계 학교인 창신학교 교사 임학찬과 상남장로교회 장로 이상소와 접촉하였다. 이는 그가 임학찬과는 고향친구였고, 이상소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임학찬에게 독립선언서 날인을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해주는 것으로 마산 만세운동의 시동을 걸었다. 이는 후에 3월 21일 학생들의 주도로 일어난 제1차 마산만세시위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후 3월 26일에는 제2차 시위가, 3월 31일에는 제3차 만세시위가 전개되면서 마산의 만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⁴²⁾

마산에 3·1운동 계획을 알리고, 독립선언서를 전달하여 만세시위를 일으킨 배동석은 다음으로 그의 고향인 김해로 이동하여 김해지역의 만세운동을 준비했다. 김해에서는 3월 30일 장터에서 배동석, 임찬숙, 배덕수 등 6명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태극기를 흔들며 김해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때 주동인물 몇 명이 검거되었으나, 검거를 면한 인사들은 다음 장날을 거사일로 정하고 만세시위를 준비하였고, 4월 2일 만세시위가 전개되었다. 배동석은 이때 검거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⁴³⁾

김병수와 배동석은 세브란스의전 학생이라는 신분을 뛰어넘어 출신지역, 그리고 교육기관, 인맥 등의 연계를 통해 서울 이외에 군산, 이리, 함안, 마산, 김해 등 전북지역과 경남지역의 만세운동의 도화선을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활동은 서울에서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출신지를 중심으로 하여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려고 했던 계획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된 것이었고, 그 뒤에는 학생 개인의 독립운동을 향한 열망과 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는 각 지역의 독립운동의 기폭제의 역할을 하여 독립운동의 전개에 중요한 기점을 마련하였다.

42) 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 역사』 29, (2011), 340-341.

43) 김진호, 『국내 3·1운동 2 남부』(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264-265.

IV. 맺음말을 대신하여: 세브란스 학생 독립운동의 특징

3·1운동이 종교계의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계획되었지만,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계획에 따라 체포되면서, 가두시위를 중심으로 한 3·1만세운동의 전개에는 학생들이 큰 역할을 담당했다. 이 가운데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은 남대문 밖에 위치한 의료기관이자 교육기관인 세브란스를 중심으로 학생조직의 거점을 마련하여 만세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만세시위의 전개과정을 통해 본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독립운동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세브란스 학생들은 모두 기독교청년회(YMCA)에 가입하고 있어, 회합을 중심으로 끈끈한 결속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전문학교 학생들과의 연대를 이룰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지역적 배경은 아주 다양했다. 이는 세브란스가 여러 기독교 교파의 연합으로 세워진 의학교였기 때문에 의학교육을 제대로 받고자 하는 기독교 신자 청년들이 한 반도의 각 지역에서 세브란스로 진학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물들이 세브란스라는 한 공간에 모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출신 배경은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각 지역으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데에 큰 이점으로 작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러 지역에서 서울로 올라온 학생들은 거처가 필요했고, 학교 근처에 모여 살았다. 그 중에 김문진, 배동석 등 3·1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학생들이 같은 하숙집에 살았고, 화천정 126번지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의 구체적인 행보를 구상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만세시위의 주동자였고, 실형을 언도받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살펴본 세브란스의전 학생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들을 통해 독립선언서가 각 지역, 특히 학생들의 출신지역을 중심으로 신속히 전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병수, 배동석과 같은 인물들은 서울과 군산, 이리, 김해, 함안 등에서 순차적으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파급력을 제공했다.

이처럼 세브란스의 학생들은 그들의 교육 거점과 출신 거점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아갔다. 이러한 그들의 활동은 3·1운동의 역사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세브란스의전 재학 중의 학생을 중심으로 학생 독립운동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1919년 당시 세브란스의전에 아직 입학하기 전이거나, 졸업한

후에 만세운동을 펼친 세브란스인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범위는 한반도 전역에 닿아 있어 이들의 독립운동까지 범위에 넣는다면 3·1운동 때 활약한 세브란스 출신 학생들의 독립운동의 의미는 한층 더 커질 것이다.

핵심어: 학생독립운동, 3·1운동, 세브란스, 기독교청년회, 출신지, 의학교, 화천정 126번지

논문 투고일: 2019. 5. 9.	심사 완료일: 2019. 6. 5.	게재 확정일: 2019. 12. 12.
---------------------	---------------------	-----------------------

참고문헌

1. 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보』

『관보』

『조선총독부관보』

국가기록원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9-20(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0-199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3(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2, 1977)

이용설, 「나의 三·一學生運動 體驗」, 『새벽』 3-1, (1956.1.)

2. 단행본

김상기 외 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35(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김진호, 『국내 3·1운동 2 남부』(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재팬 애드버타이저 3·1운동 기사집』(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5)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삼일운동사(상)』(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3: 삼일운동사(하)』(독립유공자사업기금운용위원회, 1971)

반병률, 『여명기 민족운동의 순교자들』(서울: 신서원, 201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편, 『제중원 세브란스인의 사회공헌』(서울: 역사공간, 2016)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엮음, 『세브란스 독립운동사』(서울: 역사공간, 2019)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소 편, 『한국 근대의학의 기원, 연세』(서울: 역사공간, 2016)

연세의대 부산동창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편, 『연세의대부산동창회100년사: 1914-2014』(부산: 연세의대 부산동창회, 2014)

올리버 R. 에비슨 지음. 박형우 편역, 『올리버 R. 에비슨이 지켜본 근대 한국 42년 1893-1935』(서울: 청년의사, 2010)

전택부, 『한국 기독교청년회 운동사』(서울: 범우사, 1994)

金正明, 『朝鮮獨立運動』1(東京: 原書房, 1967)

F. A. Mckenzie, *Korea's Fight for Freedom* (New York: F. H. Revell Company, 1919)

3. 연구논문

김상환, 「경상남도 3·1운동의 전개양상과 특징」, 『지역과 역사』 29, (2011)

김숙영, 「간호부 이정숙의 독립운동」, 『의사학』 24-1, (2015)

박형우, 「1910년대 독립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박형우·홍정완, 「박서양의 의료활동과 독립운동」, 『의사학』 15-2, (2006)

박윤희·홍태숙·신규환·임선미·김희곤, 「일제시기 한국의사들의 독립운동」, 『의사학』 17-2, (2008)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제1회 졸업생 신창희의 생애와 활동」, 『연세의사학』 11-1, (2008)

반병률, 「세브란스병원의학교 제1회 졸업생들의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11-1, (2008)

반병률, 「세브란스와 한국독립운동-3·1운동 시기를 중심으로」, 『연세의사학』 18-2, (2015)

신규환, 「3·1운동과 세브란스의 독립운동」, 『동방학지』 184, (2018)

신동환, 「세브란스 인물사 3: 한국 최초의 외과병리 및 임상병리학자 최동 박사」, 『연세의사학』 2-1, (1998)

왕현중, 「일제하 원주 서미감 병원의 설립과 지역사회에서의 위치」, 『역사문화연구』 42, (2012)

이규식·양정필·여인석, 「최동의 생애와 학문」, 『의사학』 13-2, (2009)

이꽃메, 「일제강점기 산파 정종명의 삶과 대중운동」, 『의사학』 21-3, (2012)

이정은, 「경남 함안군 3·1독립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7, (2006)

- 장규식, 「YMCA학생운동과 3·1운동의 초기 조직화」, 『한국근현대사연구』 20, (2002)
- 장규식, 「3·1운동과 세브란스」, 『연세의사학』 12-1, (2009)
- 주동빈, 「3·1운동 초기 경성시위에 대한 세대론적 분석」, 『동방학지』 184, (2018)
- H. T. Owens, *Disturbances in Korea, March 24th, 1919* (Seoul: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 Barbara Legault, John F. Prescott, “The arch agitator: Dr. Frank W. Schofield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e Canadian Veterinary Journal*, 50(8), August 2000

Abstract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 Focusing on the Student Network and Nationwide Expansion of the March 1st Movement

Kim Young-soo^{*}

This paper examines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students, who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arch 1st Movement, along with religious leaders. In particular, I looked into the Independence Movement developed by the students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which ha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y belonged to the religious community of Christianity, and all of them were members of the YMCA and showed solid bonds through meetings. Based on this, they were able to establish solidarity with students from other career (technical) colleges.

Second, they had various backgrounds. Since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was founded as a union of several Christian denominations, young Koreans, especially young Christians, from throughout the Korean Peninsula who wanted to receive a medical education gathered at this college. Their hometowns were diverse, which served as a great advantage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Seoul and other regions. They lived near the school, where the Seoul station was located, and shared plans of specific step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exchanging opinions at their boarding house. It was at 126 Hwacheonjeong in Seoul where Bae Dong-seok, Kim Moon-jin and other Severance students lived together and planned the

^{*} Basic Research 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Medical History,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independence movement of students. They were the leaders of the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who received from several months to one and a half year sentences.

In addition, students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distribut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entering on their hometowns, and created the cause of the March 1st Movement occurring in each area. Kim Byung-soo and Bae Dong-seok are representative figures in charge of the movement.

As a result, the students of Severance Union Medical College based their independence movement on their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their hometowns. These activities were also a big part of the March 1st Movement.

Key Words: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March 1st Movement, Severance, YMCA, Hometown, Medical college, 126 Hwacheonjeong